

〈가톨릭교리〉 “ YOUCAT : Youth Catechism of Catholic Church ” [63]

213. 미사에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전례’에서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독서들과 복음을 듣습니다. 그 밖에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도 말씀 전례에 속합니다. 이어서 거행되는 ‘성찬 전례’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고 축성되며 영성체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214. 미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미사는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제와 복사, 독서자, 찬창자 등 제단 봉사자들이 입장하며 시작합니다, 인사 후 공동 참회예절이 이어지며, 참회는 ‘자비송’으로 끝납니다. 대림시기와 사순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과 축일에는 ‘대영광송’을 노래나 말로 바칩니다. 본기도를 통해 신약 성경과 구약성경에서 하나나 두 개의 독서를 준비하며, 독서 후에는 화답송을 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알렐루야’와 같은 복음 환호송을 노래나 말로 바치며, 최소한 주일과 축일에는 복음이 선포된 이후 사제나 부제가 강론을 합니다. 주일과 대축일,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는 신경信經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고, 이어 보편 지향기도를 바칩니다. 미사의 둘째 부분인 성찬 전례는 예물준비로 시작되는데, 예물준비는 예물기도로 마감합니다. 성찬 전례의 정점은 감사 기도인데, 감사기도는 ‘감사송’가 ‘거룩하시도다’로 시작됩니다. 감사기도 중에 빵과 포도주의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감사 기도는 ‘마침 영광송’으로 끝나며, 바로 ‘주님의 기도’가 이어

집니다. 그다음 ‘평화예식’과 ‘빵 나눔’,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가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신자들의 영성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만 이뤄집니다. 미사는 ‘감사 침묵 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 ‘사제의 강복(축복)’으로 끝납니다.

215. 미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본래 미사 집전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주교나 사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 집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In persona Christi capitis) 제단에 선다는 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사제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그분을 그대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자신이 성품성사에 근거하여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216. 미사가 거행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시나요?

그리스도는 성체성사 안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교회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실행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정말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일부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단 한번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이 제대 위에 현존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들

거창성당주보 [성모성심]

◦ 주임신부 : 이청준(F·하비에르) ◦ 보좌신부 : 김용(토마스데아퀴노)
◦ 수녀 : 김고스마, 박크리스티나 ◦ 총회장 : 장영환(바오로)
◦ 670-8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58 (대평리 1232번지)
홈 페이지 : <http://geo.cathms.kr>

☎ 사무실 944-0781 / 사제관 944-0782 / 수녀원 944-0783 / 보좌신부 944-0784 / FAX 944-0785

770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구섭(안드레아), 신호연(헬레나)

2013년 어느 가을 날, 마산주보에서 첫 전국성지순례자(마산교구 주관)가 있다는 글을 읽게 된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그래,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며 우울한 개구리처럼 내 생활 테두리 안에서 왈가왈부하는 종교관으로는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도 해 봐야지!”

그날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언젠가 베론 성지를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명을 받은 남편은 언젠가는 여유롭게 다시 성지를 찾아 올 거라고 다짐을 한 터였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당시 남편은 발목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이가 들에 따라 악화가 되어 근육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으로 발바닥 통증이 심하여 일 년여가 넘도록 투병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암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간 간병을 하고 왔다. 이래저래 마음 둘 곳이 없었다. 아마 남편도 그러했으리라. 나는 책을 구입했고 그때부터 수없는 계획이 머릿속을 채웠다. - 순례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 로 시작해서 수없는 길을 찾고 ‘도보순례’가 원칙이라는 첫 번째 지침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도보순례는 포기를 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기로 하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먼 곳부터 시작을 하자,’ 든가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머리를 맞대 봤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떠나기 시작했다. 하루의 시간은 하루의 거리로, 이들의 시간은 이들의 거리로...

그래서 2014년 6월 29일에 시작된 여정은 9월20일 추자도를 거쳐 제주 관덕정을 둘러보며 제주중앙 주교좌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로 마무리를 했다. 때마침 신부님께서는 순교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자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여 주시면서 더 많은 감명을 안겨주셨다.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 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순탄한 여정에 돌입했다. 여름의 하루는 길었으며, 구름은 해를 가려주어 따가운 여름 햇살을 우리들로부터 격리 시켜주어 무더움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복잡한 서울 시내에는 교황님의 방한으로 한바탕 축제가 지나가고 난 뒤라 일요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우리의 앞길은 그야말로 순탄대로였다. 잔뜩 긴장을 한 마음이 풀리고 착한 ‘네비게이션’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거리로 안내를 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알려주고 있었다.

대구교구를 시작으로 마산교구를 거쳐 원주교구, 춘천교구, 청주교구, 안동교구를 2박3일 일정으로, 다음에는 광주교구, 전주교구를 1박2일로 다니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종교관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교회는 얼마나 올곧은 종교인가? 하는 확신을 얻었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을 증거 하신 순교성인들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씨앗이며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으며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 나보다 남편은 더 많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나보다 더 열심히 했으며, 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나올 양이면 꼭 얼마간의 봉헌금을 입구에 비치해놓은 헌금함에 넣어 두고 나왔다. 묘소에도 헌금함이 있으면 지나치지 않았으며,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는 굉장한 시련에 놓이게 되었다. 지나친(?) 남편의 기도로 일정이 늦춰져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넓은 묘지 둘레에나 산꼭대기까지 널려있는 십자가의 길을 꼭 해야 했으며, 이른 시간이면 성당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신부님께서 출타중이면 두 번, 세 번 이라도 다시 찾아 갔다.

수원교구의 ‘양근’ 성지에는 교황님의 방한으로 신부님께서 서울을 가셨는데 문 앞에 ‘금일은 쉽니다.’ 라는 팻말이 붙었는데도 부근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도 문을 열지 않아 8월16, 17일에 이어 8월 31일 재 방문하여 기도를 하고 도장을 받아서 왔다.

가는 곳마다 순례지의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몸으로 느끼며 다녔다. ‘진산’ 성지의 신부님께서는 손수 예초기를 들고 땅을 뽀뽀 흘리시면서 성지를 돌보고 계셨다.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 드리고 싶었는데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반갑게 맞아 주시니 감사했다. 그냥 돌아서려니 참으로 송구스러웠다. 제주도의 ‘황사평’ 성지는 그날따라 제주 전 교구민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묘소를 손보고 있었다. 예초기를 든 형제님, 낫을 든 형제님, 심지어 호미나 가위를 들고 돌 사이의 잔디를 깎는 다리가 불편한 자매님도 있었다. 기도를 한답시고 서 있는 우리가 민망 할 만큼 열심히들 하시고 관할 성당에는 문을 닫아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현지에서 신부님을 찾아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작업복 속에 계신 신부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창 일을 하고 계시는 형제님을 잡고 직책을 물었더니 레지아 단장님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사인을 받고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곧장 빠져나왔다.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서 봉사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우리도 성당에 돌아가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본다.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들이 순례를 다니는 기간은 교황님의 방한으로 거의 모든 성지가 전대사가 주어졌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첫째는 성사를 봐야하는데 성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잘 받아 주어서 우리는 성지를 방문하는 동안 1주일, 혹은 보름 만에 고백성사를 보고 하루에 한번 미사와 영성체를 했다. 이동을 할 때면 묵주기도를 했으며, 순교자를 위한 기도를 묘소나 묘비마다 찾아다니며 하기도 했다. 십자가의 길은 하루에 한 번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명 우리는 축복 속에서 순례를 다녔다. 건강을 주셨고 부부의 화합을 주셨으며 상대를 이해하도록 인내를 주셨고, 삶의 활력을 주셨다. 미국에서 암 투병을 하는 며느리를 위하여 후원회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성지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을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기도 했으며 아깝다는 생각 없이 봉헌금을 내곤했다. 한 달의 생활비가 초과되는 것 같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자랑스럽다. 언젠가 지인을 동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성지, 그때는 좀 더 느긋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찾으리라.

또한 홍성의 ‘홍주 성지’ 를 잊을 수 없다. 순례성지 활성화를 위해 저녁 8시에는 신자들이 모여서 성지를 한 바퀴 돌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순교자들의 해맑은 믿음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은 ‘죽산순교 성지’ , 어능에서 단양까지 펼쳐지는 성체행렬...

또한 의정부 어느 건물 뒤에 외롭게 모셔져있는 황사영 성인의 묘, 그의 아내 정난주, 제주까지 귀양을 가서 그곳에 혼자 계시고, 뱃멀미를 하며 찾아간 추자도의 아들 황경환 (황사영, 정난주의 아들)!

김대건 신부님의 표착지 ‘용수’ ,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순교를 하신 곳...

또한 동정부부로 유명한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 요한과 그의 아내 이순이 루갈다, 이들은 ‘초남이’ 에서 짧은 삶을 살다가 ‘숲정이’ 에서 참수를 당하고 지금은 ‘치명자산에’ 묻혀있다. 갇은 박해와 고난을 겪으신 순교 성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그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자비로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간구합니다. -아멘-

111곳의 성지순례를 완주하며...

- 마산교구 거창성당 이구섭(안드레아), 신호연(헬레나)드림

※ 성지 순례담당자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6월 29일은 성베드로와 성바오로의 대축일이며 9월20일은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시며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 림 판

⊕ 오늘 : 성경 필사증 수여, 까페나 문화교실(없음)
베드로회(중식 후)

⊕ 예비신자 교리

- 목요반 : 10/30일(목) 20:00(대강당)
- 금요반 : 10/31일(금) 낮 미사 후(제3회의실)

⊕ 10월 묵주기도 성월 : 평일 미사 후 소성전

- 월요일 : 19:30 성모당 • 평일 : 소성전
- 금요일 : (미사 전) 09:30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 10/29(수)

십자가의 길 : 09:30~10:00 미사 : 10:00

⊕ 향심기도 특강 : • 10/27 : 저녁반(월) 20사~22시
(대강당) • 10/28 : 낮반(화) 10사~16시

⊕ 위령의 날 미사 : 11/3 (월)

- 출 발 : 08:30 정각
- 준비물 : 미사 헌금, 레지오 수첩(위령기도), 깔개
- 장 소 : 진주 나동 공원묘지

⊕ 수험생을 위한 9월 기도 : 11/4(화)~12(수)

- 시 간 : 저녁 8시, 소성전
- 준비물 :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 책자 지참
- 수험생 안수 : 11월 8일(토) 저녁 미사 중

⊕ 본당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 11/9 (주일)

⊕ 고구마 판매 : 15,000원(중고등부 성지순례 기금마련)

⊕ 새우젓갈 판매 : 15,000원(마리아회 주관)

⊕ 사무실 휴무 : 10/29(수)~11/1(토) (사무장 휴가)

<전례안내> 【주일 보편지향 기도 : 앞 1, 3 뒤 2, 4번 지향입니다】

일자	해설	독서	보편지향 기도	봉헌	복사
26	장영근	백광석, 홍옥심	자비의 모후, 지혜로우신 모후	조철효, 김미연	손경열, 정규창
11/2	이홍영	이심근, 이난형	하늘의 문, 의덕의 거울	채영현, 홍옥심	이호엽, 곽종권
9	조철효	신종수, 곽명희	그리스도의 모후, 모든성인의 모후	이구섭, 신호연	김규태, 정규창

<봉사차례> (실외 게시판 참조)

주일 차량 봉사	26	김상태(가브리엘)	11/2	박일환(안드레아)	9	이심근(이냐시오)
은빛 중식 봉사	31	결백하신 모후	11/7	사랑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모후	14	성실하신 모후, 루르드의 성모
주일 중식 봉사	26	상림 4, 5반	11/2	중앙 1, 2반	9	중앙 4반

<우리의 봉헌> (지난주일 미사 참례자 : 학생 57명, 일반 465명)

주일 헌금	1,695,000원	○ 농협 : 841131-51-011132 (예금주: 재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전교주일 2차	1,187,000원	
교무금	3,733,000원	
교구사업모금	100,000원	

<미사안내>

평일미사					주일미사		
월(10/27)	화(28)	수(29)	목(30)	금(31)	토(11/1)	일(11/2)	
06:00	19:30	10:00	19:30	10:00	16:00 / 18:30	06:00 / 10:30	
공소	금주	가지리	가조	신원	다음주	가지리	가조
미사	(10/26)	공소예절	10:30	16:00	(11/2)	공소예절	10:30
							웅양
							16:00